

어린이 청소년 포교 총람 발간을 축하하며

이 땅에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닳을 올린 지 어언 80년 성상이 되었습니다. 그 동안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뛰어난 선각자들과 지도자, 그리고 밝고 씩씩한 청보리들에 의해 향상일로 길을 걷기도 했으며 거센 비바람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. 이제 그 포교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책으로 《어린이 청소년 포교총람》을 발간하고 세상에 내놓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.

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는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이 얼마나 많이 부처님 품안에서 밝게 자라날 수 있으며, 그들을 얼마만큼 잘 보살피고 육성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이 나날이 늘어날 때 한국불교라는 큰 나무가 이 땅에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.

우리의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려면 그 동안의 발자취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. 역사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앞날을 향한 밝은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. 냉철한 현실 진단을 발판으로 잘못된 점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면서 시대정신과 호흡할 때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앞날은 밝게 동터오를 것입니다.

다행히도 오늘 이렇게 《어린이 청소년 포교 총람》을 발간하게 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역사와 현황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제 이 한편의 책으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전반을 한눈으로 조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, 이 분야를 연구하고 뒤돌아보는데 귀한 자료를 제공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

그 동안 종단차원에서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깊게 못 살피고 관심을 잘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. 시대가 변하였는데 아이들의 욕구수준을 우리 스님이나 신도 등 기성세대가 따라가지 못했고, 절에 꼭 나와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신심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

그래서 종단에서는 3년 전부터 포교원에 어린이 청소년 팀을 두어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활성화를 도모해 왔습니다. 이 총람은 그러한 소중한 결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참으로 장한 불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.

그 동안 남들이 잘 돌아보지 않는 곳에서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묵묵히 지켜보고 애써 온 분들이 계십니다. 그들은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포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마치 무소가 자신의 땀을 아끼듯 묵묵히 앞만 보고 걸어왔습니다. 그분들 덕분에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오늘과 내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. 이 자리를 빌어 그러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

이 《어린이 청소년 포교 총람》을 통하여 우리 종단이 더욱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힘을 기울이고 일신 우일신하며 발전할 수 있기를 발원하며, 이 총람이 발간되기까지 수고해주신 실무자 여러분, 그리고 집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보냅니다.

불기 2553(2009)년 11월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